**2012.06.01 [보도자료]**

|  |
| --- |
| **SK E&S,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위례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합작투자 계약 체결**   * ***‘위례에너지서비스㈜’(가칭) 설립, 상호 협력키로*** |

SK E&S(대표 문덕규)는 1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와 함께 위례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합작투자 체결을 통해 위례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위례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을 목표로 추진중인 합작법인(가칭 ‘위례에너지서비스㈜’)은 SK E&S 71%, 한국지역난방공사 29% 비율로 공동출자, 7월경에 설립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 일대를 아우르는 위례신도시는 사업면적 677만5000㎡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약 4만30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업무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은 청정연료인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저렴한 지역난방 열 공급은 물론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고효율의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